

함께 물들어가는 12월

양곤, 산, 그 30일 이야기

JUN, KONI, J, YOUNG

2015 December

12월 아띠들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러펫농장 방문. 노동	2 빼이네빈 널서리 첫 방문	3 레이몬피 농장 방문. 노동	4 후식 (하루 종일 비가 올 12월의 태풍..)	5 마을탐방 (퍼야 및 마을 집 방문)
6 필로까지 트래킹	7 레이몬피 농장 방문. 노동	8 널서리 (개접기)	9 모 써야마 집 홈스테이	10 널서리 (모자접기) 이전의 단원 생일파티 퀘웨 집 홈스테이	11 농장 잡초 제거	12 후식. 아이제이집 홈스테이
13 휴식	14 산드라 간사님 컵백.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파티	15 셀로집 생활. 기념 파티	16 빼이네빈 축제 춤 연습 구경	17 널서리 (페이스페인팅). 양곤으로 컵백	18 양곤 도착. 크리스마스 캐를 새벽까지.	19 휴식
20 한국에 가는 친교와 점심. 거바에 파고다 산책	21 마우플라바 크리스마스 파티. 양곤 YMCA 파티	22 양곤 Y 널서리 크리스마스 파티	23 흘랑파야 크리스마스파티 (널서리. MF)	24 브라운 생일. 교회 크리스마스 파티 참석	25	26
27	28	29	30 다시 필로로 출발!	31 빼이네빈 도착. Happy new year party! Feat. 솔리.IJ	5일간의 자유시간	
(양곤 YMCA의 휴일)						

목차

1. Shan state

- 아파들의 뻘이네빈 마을 삶이
- 소동프로젝트
-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2. Yangon ymca

- 새벽까지 크리스마스 캐들
- ymca 크리스마스 파티

3. 못다한 사진전

4. 개인 에세이





1

Shan State

아띠들의 배이네빈 마을살이



배이네빈 마을

지도



농장가는길

**아직 누구 집 인지 모르는
많은 집들이 있음**



빼이네비 속 아띠들 자세히 보기



이재현(92년생)

빼이네비의 뽀잘이.
*처음에는 아눔을 싫어했으나, 아눔의 매력에 빠져 시간이 지날 수록 아눔을 편애했.



이다영(94년생)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설명 불가능.
신이 내린 농사꾼.
특이사항 : 바나나와 시리얼을 향한 미친 집착을 가지고 있음
중요사항 : (예비 아이진 가족)



이건희(91년생)

특이사항 : 점점 미안마 사람처럼 변해가는 외모
예를 매우 예뻐했으나, 예는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민준(89년생)

홀라웨이 lover.
묘지(미안마 가수) 팬클럽 회원
소문 제조기. 근본적인 사건의 원인



솔리(93년생)

눈치 0%! 완전한 긍정주의자.
주로 하는 말: 이 사기꾼아.
밥먹자아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매우 좋아함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초긍정의 소유자!!!!



화장하기



오바하기



장난치기



예쁜척하기



설정샷 노리기



중국인 아줌마

빼이네빈 인물 사전 자세히 보기

가족인 경우 ————— 로 표시



흘라웨이(5세)
옆집에 사는 미모의 소녀
키워드 : 김민준의 짝사랑

동일인물



세수 전 흘라웨이(5세)
키워드 : 불량감자



제이 선생님(91년생)
흘라웨이의 이모
키워드 : 요리요정



ړړړړ 선생님(91년생)
제이 선생님 절친
키워드: 절렘렘, 실연,
이건희, heartbreak,
second heartbreak



선생님
12월에는 임신부였으나,
1월에는 아기 엄마가 되었다.



튀 선생님
학교 앞에 매점 운영
아피들의 간식들은 모두
선생님 매점에서 ㅎㅎ



아웃(14세)
옆집 매점 아들(아카의 형)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똑똑이.
김민준 단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다가, 오토바이 망가트림.



아카(4세)
옆집 매점 아들.
특이사항 : 이재현 단원과
함께 엑소 동영상을 자주
봄



2016년 1월 17일 저녁 8시 출생.
콩알만한 몸으로 아피들을 사로잡음.

빼이네빈 인물 사전 자세히 보기



마모(17세)
튼직한 말팔
못하는 것이 없는
17살 같지 않은 성숙함



마모 남동생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다.



누웨이(3세)
마모 여동생
춤추고 노래 하는것을 좋아함. 애교쟁이



(2세)- 보보애기(아누과 모의 동생)
특이사항: 보보인사로 아피들을 사로잡았으나,
막상 아피들이 다가가면 울음을 터트림



모(10세)- (이건희 절친)
특이사항: 오빠인 아누보다 높은 학년.
특징: 슬픈 표정을 자주 보임
항상 동생 을 업고 다닌다.



아누(13세) -관중 of 관중(이재현 절친)
특이사항: 13세이나, 초등학교 1학년.
특징: 짜증 유발자. 마을살이 초창기 이재현 단원의
미움을 샀으나, 특유의 '바보미'로 결국 이재현 단원
의 마음을 사로잡음.(이다영 단원의 마음은 끝까지
사로잡지 못함.)



용(9세)
바우의 친척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이 별로 없
다.하지만, 용을 좋아하는 남자 친
구들이 많다는 것!



바우(9세)
항상 자신의 집에 초대해줌
아피하우스 단골친구



예(3세)
모 선생님의 딸
이건희 단원의 예쁨을 독차지 했다.



모 선생님 (널서리 선생님)
한국드라마 마니아. 매일 밤
그녀가 보는 한국드라마의 대
사가 아피들의 방에도 들린다.

빼이네빈 인물 사전 자세히 보기



주신(학원) 패밀리
6시반이면 아피하우스에
들려 함께 놀다가

7시에 학원을 가기
위해 우르르
바람같이 사라짐



아이제이(17세)
키워드 : 가출.
가출 후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음.

아잠(15세)
맥주마시는 재현 놀리기
특이사항:보기보다 팔 힘이 은근 약함



아웅 아웅(13세)
아피 하우스 최다 출연

탓아웅(5세)
때로는 귀엽지만.
너무 개구짐.
특징: 엄마 손에 끌려
밥 먹으러 가기



포인(12세)
스님 같지 않은 애기 스님



홀름(12세)
특이사항 : 이견희의 소꿉친구
이슬과 닮았다.



아토웅(10세)
키워드 : 평지 민다!



아홀름(9세)
키워드 : G!O!D! dog!!!



마이(3세)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매점아저씨(30세)
민준 오빠를 매번 찾는
민준LOVER
밤마다 TV보러 놀러
오라고 한다

빼이네빈 인물 사전 자세히 보기



아이진 가족



우소원(아이진의 아버지)
빼이네빈의 부자로 추정 됨.
아피들에게 항상 맛있는 밥을 해주신다.
특이사항: 이다영 편애



지 선생님(아이진의 어머니)
항상 미소로 아피들을 맞아주신다.
가끔 아피들의 방을 방문하여,
폭풍 잔소리와 함께 청소를 하고 가심.
특이사항: 이다영 편애



아이진(96년생)-아피들의 동반자.
아버지 몰래, 아피들과 맥주 마시는 것을
매우 즐김. (아버지 우소원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된다.)

특징 : 사랑꾼



아이표, 더진 선생님
(아이진의 형과 형수님)
아피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심.
특이사항 : 1월에 임신을 하심.



케이(10세)
이다영 절친
지선생님 언니의 손녀



빵(17세)
마오의 친척
셀카 찍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마을 남자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ㅎㅎ



모(10세)
눈웃음이 귀여움
매니큐어 알록달록하게
바르는 것을 좋아함



흘라이(17세)
수줍음이 많음
슬리를 짝사랑함.

우리들의 빼이네비 생활은 세시 세끼?



1. 밥을 먹고 싶다면 불부터 먼저 피워라!



3. 밥이 다 되는 동안 반찬을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
(불이 하나 뿐이라서 동시에 할 수 없다.)



2. 불 조절 잘해가며 밥을 안친다.



4.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만든다.
(여기 까지 오는데 3시간이라는 게 함정...
밥 다만들면 지쳐있다.)

너네집도 우리집 우리집도 너네집?



솔리와 건희는
파로 놀고 있는중

#1. 아피 들이 없어도 편안하게 놀다
가는 아이들



#3.우리 집 부엌에서 기타 치며 캠프파이어
하는 아이들



#2.(갑자기) 오빠들의 이불을 정돈하시는
더진 선생님



#4.마을사람들에게 얻어 먹는 것에 익숙
해진 아피들

욕실없는 배이네빈에서 어떻게 샤워를?



욕실이 없어도 아피들 에게는 **우물**이 있다는것!
우물 앞에서 룬지를 입고 주로 샤워를 한다.

샤워 외에도 우물은 아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공간이다..



#1. 이다영 단원의 호빗발 깨끗이 청소



#3. 설거지



#4. 생수



#2. 소동. 각종 냄새와 땀에 지든 빨래 세탁.



#5. 김민준 단원의 덥수룩한 수염을 밀기

빼이네빈 마을 사람들의 농장

마을 사람들은 8시에 일을 나가 5시쯤 농장 일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향한다.
점심을 농장에서 해결해야 했으므로 밥과 반찬을 농장까지 직접 들고 갔다.
아띠들은 주로 빼이네빈에 많은 차 농장 과 오렌지농장에서 일을 도왔다.

#1. 오렌지 따기



#2. 차 따기



#3. 밭 갈기



#커피 콩 따기





9시 -12시 일하기
"홍봉!"(밥먹자) 소리가 들리면
밥 먹으러 모두 올라감



12시-1시 모두 함께 밥 먹기
반찬도 함께 나눠먹는다.



가끔씩 밥에서 벌레도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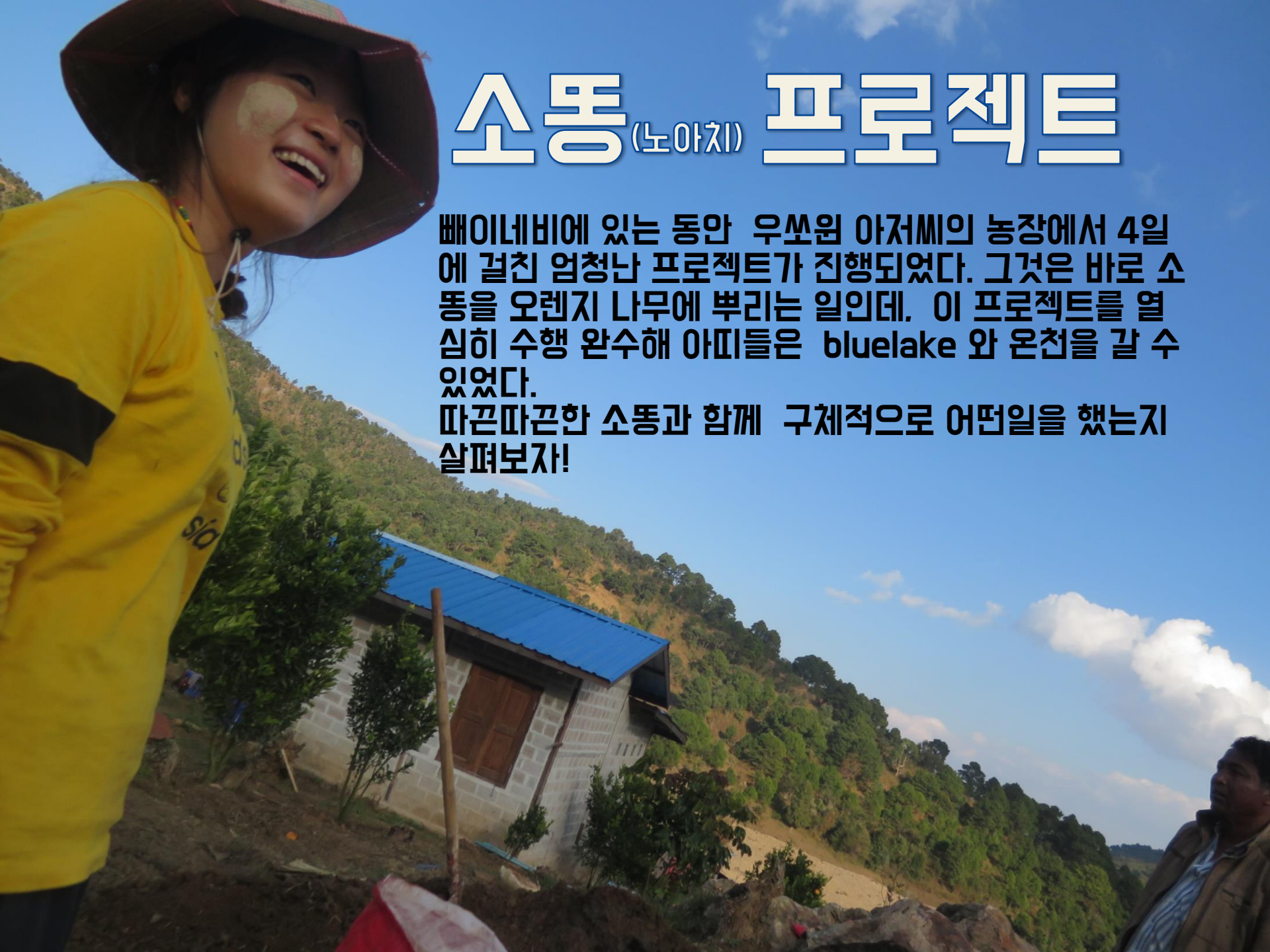


1시-2시 차 타임. 낮잠 타임
서로 이야기하고 잠시 부른 배를
쉬어주기



2시-5시 다시 일하기

해가 질 때쯤 되면
모두가 집을 챙겨 마을로 향함



소똥^(노아치) 프로젝트

빼이네비에 있는 동안 우쏘원 아저씨의 농장에서 4일에 걸친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바로 소똥을 오렌지 나무에 뿌리는 일인데,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 완수해 아띠들은 bluelake 와 온천을 갈 수 있었다.

따끈따끈한 소똥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일정표

첫째날

소통 나르기- 건희 민준 아이진 아이표 솔리
오렌지나무에 거름주기- 다영, 재현, 더진선생님

둘째날~
넷째날

소통 나르기- 건희 민준 아이진 아이표 솔리
오렌지나무에 소통뿌리가- 다영
오렌지 나무에 물뿌리기- 재현

일이 끝난후 먹는 **점심**은 우쏘원아저씨께서
직접 요리 해주셨다. 다른 농장에서 먹는 점심
보다 더욱 푸짐하고 맛있는 요리로 아피들을 감동시켰다.
우쏘원 아저씨의 주 요리인 콜리플라워와 다양한 종류의
고기(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반찬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콜리플라워가 질리기 시작할 쯤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게 함정 ㅋㅋ



비료뿌리기

덩어리로 되어있는
비료를 부셔 양동이
에 담는다.
그 후 오렌지나무
에 골고루 뿌려준다.
**이때, 비료가 오렌지
나무 주위에 닿지 않
게 뿌려준다.**



소똥뿌리기

봉지에 담긴 소똥을 오렌지 나무에
뿌린후 손으로 곱게 펴준다.
**이때 덩어리진 소똥은 손으로 잘게
부셔준다.**
냄새는 알아서 주의할 것!



물뿌리기

소똥이 뿌려진 나무에 물을 축축하게 뿌려주면
끝!**이때 길게 늘어진 호스가 엉키지 않게 주
의한다**



1. (산처럼 쌓인) 소똥을 봉지에 담는다.



단,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한다.



2. 봉지에 담은 소똥을 한 봉지씩 등에 들어 업고 내려가 오렌지 나무 사이사이에 놓아준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마을 꼬마들과 마을친구들을 위해
아띠들은 어떻게 마을 안에서 놀았을지! 그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1. 한복 소개해주기

준비해간 한복을 마을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직접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포토 타임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다.



처음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부끄러워하는 빵과 흘라이
하지만, 한복을 입은 후 셀카 폭발한 수줍은 두 소녀는 그날 밤이 깊도록 서로의 사진을 찍었다.



같이 사진을 찍어줘야
한다며 급하게
한복으로 갈아입은
김민준 단원의 세심함



하지만,
빵과 흘라이의
관심은 온통
양곤남자 솔리
에게 쏠려있었다
는 사실은...
비밀ㅎㅎ

#2. 몸놀이



#5.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3. 실로폰, 멜로디언 연주하기



#6. 할리갈리 하기



#4. 함께 마을 퍼야 올라가기



#7. 색종이 접기



광란의 12월31일, 그 후폭풍까지...

12월31일 빼이네빈 마을에 도착한 아피들은 1월1일 새해를 조금 더 새롭게 맞이하고자 광란의 파티를 준비한다. 새해 파티의 게스트로 모든 노래를 기타연주로 소화해내는 아이제이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미얀마노래와 아이제이의 기타연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술로..12시가 될 때 까지 노래하고 마셨다. 기타 하나와 솔리, 아이제이, 아피 네명만으로 새해 파티 분위기는 충분히 광란 그 자체였다.



HAPPY NEW YEAR!

12시가 되자 우리는 한 해를 잘살아낸 서로를 축하하며 노래를 불렀다.

항상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던 새해를 이렇게 미안마 안에서 특별한 인연들과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내(YOUNG)생의 이렇게 정신 없던 새해파티가 있을까 싶었다

다음날...술리는 몸이 안 좋다며 일어나지 못했고,

아이제이는 농장을

나가지 않아 부모님께 혼이 났다.

광란의 파티는 즐거웠지만, 다음부터는 정도껏 즐기도록!!

배이네빈 마을 안에서 함께한 건희의 생일파티



12월9일

건희의 생일을 맞아 야심 차게 전날 부터 준비했다. 건희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더 진 선생님과 지 선생님께 알리자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다음 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하겠다 하셨다. 그에 앞서 마을 안에는 케이크를 구할 수 없어 꺾로우로 나가 사야 했다. 갑작스럽게 꺾로우에 나가게 된 상황이 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바로 오토바이 투입! 꺾로우로 나가 사온 케이크를 선생님 집에 잘 숨겨두었다.



이후 선물증정과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하던 홀라웨이 때문에 빨리 케이크를 잘라 모두 나눠 먹었다.



생크림 묻은 홀라웨이



12월10일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들께서 분주하게 상을 옮기시고 준비한 음식을 갖다 놓으셨다. 선생님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소녀들 처럼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며 아피들보다 더 즐거워하셨다.



케이크 등장!!과 함께 생일 축하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건희의 행복한 생일 파티는 선생님들과 함께 생크림 범벅얼굴이 되어 마무리 했다.



우리 마을 사진전

빼이네비안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사진으로 뽑아 아피 하우스에 전시했다.
사진을 한장씩 보면서 마을 안에 지난 날의 함께 했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마을 아이들은 사진 속 친구들 찾기에 재미가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번씩 아피 하우스에 들러 사진 한장 한장을 손으로 집어 가며 살펴보셨다.
가기 전날, 아피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주며 추억을 공유했다.



2

Yangon ymca



야공Y에서 보낸

아파들의 크리스마스



새벽까지.. 크리스마스 캐롤송

필로에서 돌아온지 6시간 뒤,
아띠들은 스태프들과 함께 하는 캐롤송에 참여하기 위해 로비에 모였다.
이후, 캐롤송을 부르며 ymca 스태프들 집을 돌기 시작했다. 캐롤송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주면, 집주인이 캐롤송을 부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선물로, 각종과자, 과일, 주스 등등, 캐롤송을 부르며 선물 받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12시가 넘어가자
캐롤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차에서 안 내리는
인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거나 덩치 순으로..)
차에서 졸다가 세워주면 내리길 반복, 정신 없이 캐롤을 부르다
새벽 4시가 되서야 ymca의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마무리 되었
다. 아피들은 부른 배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다. ZZZ..
(부제: 잠과의 사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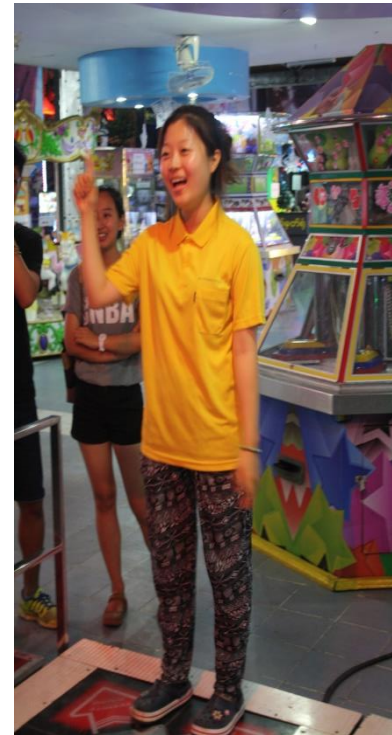
Yangon
ymca

JKJY

본 페이지는 12월 아름다운 추억과 생활을
상기시키기 위한 페이지로
개인 이미지 훼손과 같은
폭력적인 요소는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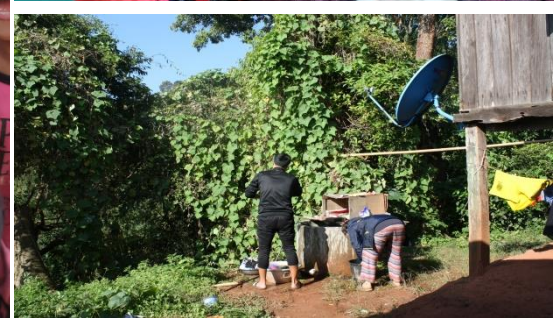
못다한 사진전

JKJY



못다한 사진전

JKJY





3

개인의 에세이

매일 밤 별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나무 의자에 누워서,
한 시간씩 가만히 별을 보곤 했다.

이제는, 그 순간이 꿈 같이 느껴진다.

눈을 감으면 자꾸 지는 노을이 떠오른다. 미얀마의 드넓은 들판에 나무 한자루가 서있고, 그사이로 지는 해가 눈에 아른거린다.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양곤으로 향하는 30시간.. 종일 보아도 질리지 않았던 미얀마의 풍경들이 아직도 눈에 스친다.
 아직도 내 귓가에 '영!' 하며 내 이름을 부르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른거린다.

5개월이 긴 시간 인가보다.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정이 많이 들었다.

5개월이 참 짧은가 보다.

우리가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아쉽게 떠나니 말이다.



하루하루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농장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이 마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길을 걸어가 다가도 멈춰서 인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처음에는 우리 집에 찾아오면 반갑던 아이들이 놀이 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점으로 귀찮을 때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축복인 것 같다.

양곤으로 돌아오자마자 뻑뻑한 차들과 좋지 않은 공기가 나를 반기는 순간. 빨리 빼이네빈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곳의 냄새와 아이들과 사람들이 그림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2015년 12월,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깊었던 한 달.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또, 그 특별한 순간들을 내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기뻐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저번 달에는 약간은 걸들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번 달에는 편한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의 집과 마을 거리에서 미안마어로 이야기하며 오늘 했던 일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게 없어도 마을 아이들과 손잡고 그냥 어딘가로 걸을 수 있었다. 우리가 신기해서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아이들은 이제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저들끼리 알아서 놀다가 가고 우리도 마을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 앉아서 신나게 얘기하며 놀았다. 그 순간 나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사랑 받는 한 사람으로, 이곳에 지금 이순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완전할 수 있었다. 문득 든 생각 '내 밤 이렇게 찬란할 수 있구나 쏟아질 듯 한 별 아래에서, 바싹 모여 앉은 모닥불 옆에서' 느린 마을에서 느리고 깊은 순간이 준 선물이었다.



그렇게 마을에 스며들던 동시에 나에게 이곳에서
한 달은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낯선 곳에 가던 일상 속에서 잃어버
렸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에게는 이번 한 달이 '나' 라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실망하고, 또 새로운 나 자신을
보게 된 계기되었다. 나는 25년 동안 나를 너무
잘 모르고 살았던 게 분명하다. 나를 이렇게 깊
이 바라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가족같이 편
하고 믿을 수 있는 팀원들이 내 옆에 버티고 있
어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평생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야겠다.

마지막 날, 친구의 집에서 잠이 오지 않는 잠자
리에 들면서 이곳의 햇살, 웃음소리, 이불의 감
촉,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
서를 쓰고 있는 지금, 너무 나의 현재와 달라서
일까, 그 기억들이 슬슬 어렴풋하고 흐릿하게 아
무렇지도 않게 저편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꼭 붙
잡아야지 손을 놓지 말아야지 깨어있어야지 다
시 한번 다짐한다.



모두 한국에서 봄시다!